

일반 연제(Ⅲ) - 16

약물유발성 천포창

원진형, 안성구, 김수찬, 이창우 *

연세원주의대 피부과학교실 . 한양의대 피부과학교실 *

천포창은 IgG 자가항체에 의해 유발되는 자가면역 수포성 질환으로서 표피에서의 극세포해리증(acantholysis)을 특징으로 한다. 드물게는 약물에 의해서도 천포창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D-penicillamine과 captopril이 가장 흔한 원인 약물이며 그외 pyritinol, penicilline, rifampicin, phenylbutazone, piroxicam등에 의한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약물유발성 천포창의 기전은 약물이 표피에 붙어서 직접적으로 표피세포간 접착을 방해한다는 설과 보통의 천포창 처럼 자가항체를 생성한다는 설이 있다.

저자들은 49세 남자, 74세 남자, 48세 남자에서 각각 rifampicin, captopril, nifedipine(Adalat^R)에 의해 유발된 천포창을 경험하고 보고 한다. 세환자 모두 조직병리 소견상 낙엽상 천포창 이었고 두환자에서 직접면역형광현미경 소견상 표피세포 간질에 IgG침착을 보였고 한 환자에서는 간접면역형광현미경 소견상 혈청내 IgG가 증명되었다. 치료경과를 보면 한환자는 원인약물 중단만으로도 치유되었고 두환자는 원인약물중단과 단기간의 프레드니솔론 경구투여로 치료되었다.

이상 임상, 조직학적, 면역조직학적 소견상 약물유발성 천포창으로 진단된 3예를 보고 한다.